

---

## 2021년 8월 4일 평동교회 수요성서연구 자료 - Ver.1 공동읽기와 묵상

제목 : 레위기 12. 속죄일의 원리

본문 : 레위기 16장 29절~34절 /

(레 16: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

### 속죄일 규례와 절차의 의미 -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1.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과 그로인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다시 한번 속죄일의 규례를 통하여 속죄함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죄일의 규례와 절차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함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속죄일(קִּיּוּם יוֹם הַכִּפּוּרִים, 욥 키푸르) 규례는 아론의 두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죽은 이 사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면 예외없이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엄중한 사실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정결하고 신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규례였습니다. 이렇게 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1) 속죄일 규례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각의 제사와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제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때 제사장의 의복은 평소와는 달리 어떻게 입어야 했습니까?

2) 준비의식이 끝나면 속죄제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드러진 두 짐승의 속죄제 의식을 살펴보십시오. 먼저 수송아지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드리지고 있습니까? 속죄일에는 수송아지 외에도 두 염소가 특별한 방식으로 속죄제물로 드러졌습니다. 두 염소들이 어떻게 각각 드러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특히 삼중적 죄 용어와 함께 성소의 삼중적 청소와 정결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고 있는지에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3) 통합된 두 제물의 속죄제를 드린 후 아사셀을 위하여 남겨진 또 다른 염소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 4) 아사셀 염소 의식 이후에 다시 어떤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아론은 어떤 준비를 해야 했습니까? 번제 의식은 어떻게 다시 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속죄일의 절차가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했습니까?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속죄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 절차와 함께 중요한 것은 태도와 마음

2.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속죄제의 규례와 각종 정결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문제와 그로인한 결과들을 해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특히 정결함과 거룩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임을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룩함과 정결함의 강조는 다시한번 속죄일의 규례로서 확증되었습니다. 특히 속죄일의 규례들은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속죄일의 규례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이런 모든 속죄일 절차와 예식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 #. 외적인 형식과 내면의 마음과 태도 문제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균형을 이루며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모든 외적인 절차와 형식을 이야기 한 다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속죄일 규례를 어떤 마음 자세로 지키고 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면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 1) 속죄일 규례가 행해지는 시기의 특별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일 규례는 언제 행해야 했습니까?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예외없이 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까?
- 2)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 26~32절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의 속죄일에 대한 규례와 달리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비교해서 살펴보십시오. 속죄일을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 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하면서 기름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이들에게 레위기 본문은 속죄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속죄의 의미를 반드시 숙지해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속죄일의 의미와 규례가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 적용을 위한 기도 제목 : 속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이 속죄일의 규례를 단번에 성취하시고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